

관상동맥우회술후 신경학적 합병증

서울대학교병원 신경과학교실*, 홍부외과학교실**

윤병우* · 배희준* · 강동화* · 홍근식* · 김기봉**

관상동맥 우회술은 우리 나라에서도 성인 심장질환의 수술중에서 차지하는 빈도가 점차늘고 있다. 관상동맥 우회술후의 신경학적 합병증은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 비교적 흔한 합병증의 하나이며, 따라서 허혈성 심장질환자의 내과적 또는 외과적 치료방침을 결정하는데 고려하여야 하는 중요한 요소들 중의 하나이다. 저자들은 우리 나라에서의 관상동맥 우회술후 신경학적 합병증의 빈도를 조사하고, 위험인자를 분석하기 위하여 전향적 연구를 시행하였다.

1995년 4월부터 1996년 8월 사이에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관상동맥우회술을 시행한 102명의 연속적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수술전과 수술후에 신경과 팀에 의한 신경학적 검사를 실시하였다. 대상환자들은 두개내 및 두개의 뇌혈관 질환의 평가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수술전 신경학적 검사를 받았으며, 수술후에도 신경과 팀에 의한 신경학적 검사를 실시하였다.

신경학적 합병증은 33례에서 관찰되었는데 뇌병증이 20례, 뇌허혈이 8례, 그리고 간질발작이 5례에서 관찰되었다. 수술후 사망은 4례에서 있었으나, 신경학적 합병증과 관련된 사망은 없었다. 과거력상 뇌졸증이 있었던 경우가 18례 있었으나 수술후 신경학적 합병증의 발생과 유의한 상관 관계는 없었으며 ($p > 0.05$), 두개내 및 두개의 뇌혈관의 협착, 심근벽 운동이상, 수술중의 저혈압, 심폐기 가동시간, 심기능 보조장치의 사용, 연령 등과 같은 인자들도 신경학적 합병증의 발생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는 않았다.

본 병원에서의 관상동맥우회술후 신경학적 합병증은 서구의 보고들과 비슷한 발생빈도를 보였다. 하지만 신경학적 합병증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는 위험인자의 규명을 위하여서는 향후 더욱 많은 수의 환자군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